

# 아이들의 학습공간으로 재탄생

###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장, 내년부터 생태교육장으로 운영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장이 2019년부터는 어린이 생태·환경교육장으로 운영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송천동 전주하수처리장 홍보관 확장 및 개선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이곳을 '어린이 생태·환경 학습장'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7억원을 투입해 전주하수처리장 관리동 건물 1층에 위치했던 홍보관을 건물 1층 전면 공간으로 확장하고,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생태와 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했다. 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 실개천을 갖춘 생태교육장을 조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변신쟁이 꾸미의 신나는 물방울 여행'을 주제로 한 홍보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귀여운 물방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수의 발생과정과 물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상영되고, 하수처리과정을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시설물 등이 마련됐다. 특히, 영상실의 경우 빈프로젝터 3대를 설치해 실감나는 영상과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생태실개천은 물의 흐름을 한 눈에 살피고 수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 어린이들에게 환경보호와 생물 다양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생태학습장이자, 데크 등 편의시설을 갖춘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전주 공공하수처리장 홍보관 새단장이 완료된 만큼 내년에는 더욱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전주시민들이 공공하수처리장 방문을 통해 하수의 발생과 처리과정에 대해 알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뽀뽀하고 더럽다고 기피하던 하수처리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생태·환경학습의 장이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송천동 전주하수처리장 홍보관 확장 및 개선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이곳을 '어린이 생태·환경 학습장'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자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으로 전주시민들과 상생하는 시설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1월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견학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홍보관 운영

및 견학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환경사업소 견학담당자(063-250-5101)에게 문의하거나 전주환경사업소 홈페이지(http://전주환경사업소.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강태호 감찰계장 권현주 강력계장 이인영 여성보호계장

## 도내 최초 여성 총경 승진

### 이인영 내정자... 전북경찰청, 총 3명 승진 내정

'경찰 계급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에 전북지역 최초로 여성이 승진했다.

지난 28일 경찰청은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82명을 발표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으로는 강태호(53) 감찰계장, 권현주(48) 강력계장, 이인영(51·여) 여성보호계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이인영 계장은 전북 최초 여성 총경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강태호 총경 승진 예정자는 1991년 경위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임실경찰서 생활안전교과장, 익산경찰서

청문감사관, 전북청 인사계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권현주 총경 승진 예정자는 1992년 경찰대 8기로 경찰에 입문해 군산시 수사과장, 전북청 광역수사대장, 익산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이인영 총경 승진 예정자는 199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전북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교과장, 전북청 아동청소년계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청은 조만간 승진 예정자를 포함한 총경 인사이동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훈 기자

## 사랑의 장학금 고속도로 타다

### 전주시에 장학금 전달

전안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전주지역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돕기 위한 사랑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안산고속도로에서는 이날 저소득 청소년을 돕기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힘쓰는 우수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선관 전안산고속도로 대표 표어사는 "전안산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전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이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며, 나눔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과 복지사각지대 곳곳을 살피는 따뜻한 손길을 전주시를 더욱 살기 좋은 사랑의 도시로 만든다"며 "지역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한옥마을 풍경들, 태조로에 나부끼다

### 전주시, 500m 구간

### 가로등 배너 30조 게시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에 여행명소와 대표 문화시설의 모습이 담긴 가로등 배너가 설치된다.

전주시는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는 한옥마을 태조로의 가로등 배너 30조를 활용, 한옥마을의 명소와 대표 문화시설의 정경·체험사진 등을 게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그간 태조로 가로등배너는 시 주관 행사와 공연 등에 대한 홍보물이 게시되어 왔으나 배너 게시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행명소 등을 담은 디자인 배너를 게시하기로 했다.

이는 태조로를 찾는 여행객 대부분이 외국인과 외국인들로, 이들이 한옥마을을 방문한 주간에 열리는 행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 홍보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상설공연 홍보배너가 장기간 게시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태조로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도 돼왔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시도되는 배너 홍보물에는 △오목대에서 바라본 전주한옥마을 정경 △전주전 △전주향교 △형연루 △한옥담장과 오목대 돌레길 △골목길 등의 풍경사진이 담겨있다.

또,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소리통솔박물관 △최명희문화관 △한관본문화관 △전통문화연수원 등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문화시설이 집중 홍보된다.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에 여행명소와 대표 문화시설의 모습이 담긴 가로등 배너가 설치된다.

시 한옥마을지원과는 "이번 태조로 가로등 배너 제작사업이 총 300만원이 채 되지 않은 적은 예산이지만 여행객들에게 전주한옥마을의 숨은 명소의 절경과 문화시설 등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야외 공연 등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실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송효철 기자

김용태 전주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전주한옥마을은 여행객들에게 다 보여주기 못한 잠재적인 매력들이 넘쳐나지만, 찬만여행객이 찾는 여행지이다 보니 한옥마을의 다양한 모습과 콘텐츠를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행객들의 즐겁고 유익한 여행을 위해 다양한 홍보체계 마련과 여행객들을 위한 효과적인 안내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작지만 효율적인 아이디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보건소, 전주 동중 방문 청소년 건강진진 학습터 운영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27일 전주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통합건강증진 체험 학습터'를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는 평소 건강 체험 교육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주기 위해 연중 각급학교의 신청을 받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보건소는 △음주예방 체험관 △신체활동 체험관 △영양 체험관 △급원 체험관 △구강 건강 체험관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다양한 건강모형 및 체험도구를 직접 만져보고 이용하면서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히는데 도움을 줬다. /송효철 기자

## 전주한옥마을 한옥숙박, '안전이 최우선'

### 시, 여행객 안전 위해 한옥마을 내 한옥숙박 안전점검 강화

### 숙박협회, 전 회원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키로

최근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로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각심이 이는 가운데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내 숙박시설의 안전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시설점검에 맞춰, 사단법인 전주한옥마을한옥숙박협회는 120여개 모든 회원 한옥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매,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강원도 강릉 펜션과 함안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로 한옥마을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 전 회원들은 공동구매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 설치하는 한편, 보일러 배기구의 연통 연결 상

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전주 한옥마을지원과는 "한옥마을은 사시사철 여행객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인기여행지인 만큼, 향후에도 겨울철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이 한옥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인관 전주한옥마을한옥숙박협회장은 "여행객들의 숙박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여행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한옥숙박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안전을 기본 바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숙박시설이 될 수 있도록 친절과 서비스는

물론, 여행객들의 여행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휴대폰 빌려 현금 훔친

### 40대 피의자 붙잡혀

입원환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돈을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8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42)는 지난 9일 오전 12시 20분경 전주시 완산구 한 병원에서 피해자 B모씨(57)에게 휴대폰을 빌려 통화를 한 후, 케이스 보관 중이던 현금 31만원을 절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지난 27일 오전 10시경 A모씨를 검거했다. /김석훈 기자

## '잊혀질 권리' 송명빈, 갑질 폭행으로 경찰조사

'잊혀질 권리'로 널리 알려진 송명빈 마거그룹 대표(49)가 직원 양모씨(33)를 수년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양모씨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송 대표와 마거그룹 부사장 최모씨(47)로부터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양모씨는 송 대표를 심습폭행·상습공갈·근거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지난 11월 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폭행에 가담한 최 모 부사장에 대해서도 8개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송 대표로부터 돈기로

피망이 들 때까지 맞는 등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는 "청부살인으로 나와 네 가족을 해치겠다" 등 수십 차례 협박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양모씨는 송 대표의 폭행·폭언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녹음파일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경찰은 송 대표가 "양모씨는 배임, 횡령을 저질렀다. 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내년 초에 송 대표와 최 부사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석훈 기자

##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 5년 구형

### 선고는 내년 1월 25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게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포털사이트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9971만여 건의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8800여만 건에 대해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름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과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던 만큼 "샌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지난 26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석훈 기자

## '내가 한 게 아냐' 해남 살인 피의자 스스로 목매

경찰서 유치장에서 살인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6시 21분경 해남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살인 피의자 김모씨(59)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모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 그는 유치장에서 입고 있던 자신의

점퍼 허리 조임끈을 꺼내 스스로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모씨는 지난 18일 해남 간척지 공사장에서 사체로 발견된 장모씨(58)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다.

장모씨의 시신은 지난 18일 오후 2시 23분 포클레인 작업 도중 목에 노끈에 묶인 채 발견됐다. /김석훈 기자